



## 화단 및 분화용 솜다리 재배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Flower of  
*Leontopodium coreanum*(Edelweiss) native to Korea.

에델바이스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솜다리(*Allium thunbergii*), 요즘 한창 자생지에서 꽃이 피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압화용 꽃으로 유명하여 식물체 전체를 채취하여 누르고 말려서 압화액자로 흔히 이용되어 왔던 식물이다.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식물로 비교적 고산지대에서 자생한다. 솜다리 종류는 세계적으로 약 35종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초원지대 또는 암석 틈에 붙어 자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엔 솜다리(*L. coreanum* Nakai), 왜솜다리(*L. japonicum* Miquel), 산솜다리(*L. leiolepis* Nakai), 두메솜다리(*L. fauriei* Handel-Mazz), 한라솜다리(*L. hallaisanense* Handel-Mazz) 등 5종이 해발 400-1000m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흔히 주변에서 재배 이용되는 것은 솜다리와 왜솜다리이다. 유럽에서는 알프스의 별이라고 부를 만큼 희고 부드러운 털이 있는 별 모양으로 꽃이 생겨 가련하면서도 우아한 기품이 나는 식물이다.



### 송 정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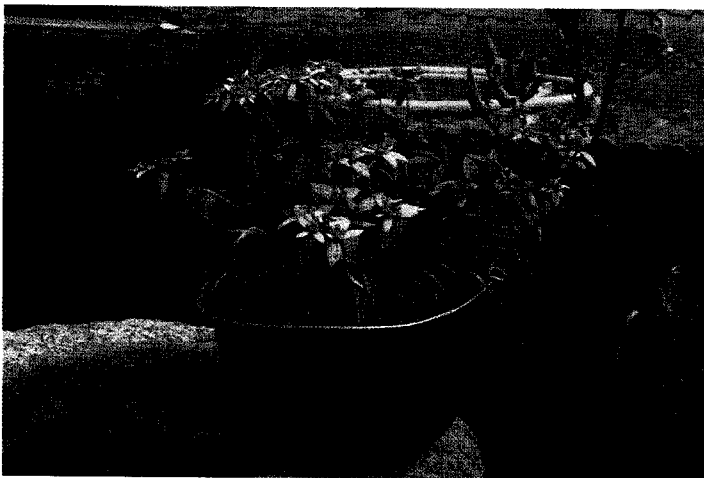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031-290-6159,

songjs@rda.go.kr,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 왜솜다리 분경

### 1. 생태적 특성 및 이용

솜다리는 키는 30cm정도이며, 꽃은 7-8월에 흰 바탕의 잎에 노란 꽃이 등글게 줄기 끝에 각각 모여 핀다. 줄기는 꽃이 있는 것(花莖)과 없는 것(無花莖)이 동시에 자란다. 주로 타기수분을 하며, 여름에 건조할 때 종자는 잘 익는다. 추위에는 강하지만 음지나 더위에는 매우 약하다.

표 1. 파종용토에 따른 왜솜다리의 묘 성장 반응(파종 60일 후)

파종용토	엽수 (매)	분지수 (개)	생체중 (g)	잎길이 (cm)	뿌리수 (개)
원예상토	15.2	2.2	1.04	9.38	15.2
고원토	15.0	0.4	0.42	5.66	6.6
부식토	13.8	1.2	0.84	8.94	10.6
모래	13.4	0.0	0.32	4.14	9.0
질석	12.2	0.6	0.32	4.22	6.6
펄라이트	10.8	0.2	0.22	4.20	7.0

표 2. 광도가 왜솜다리 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파종후 6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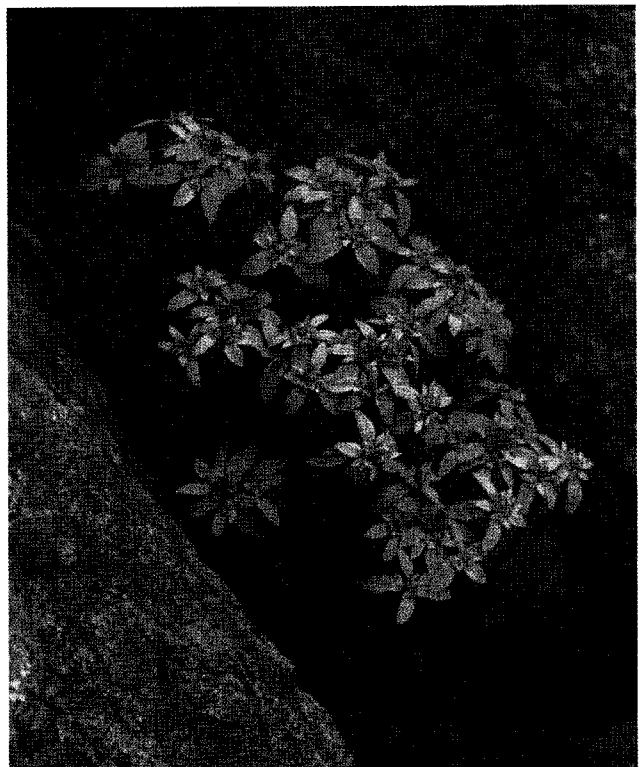
광도 (Lux)	잎 수 (매)	분지수 (개)	생체중 (g)	잎 길이 (cm)	뿌리 수 (개)
500	0	0	0	0	0
3,500	9.8	0.6	0.16	4.88	5.4
10,000	17.5	0.7	0.63	7.92	8.7
50,000	14.8	3.8	0.80	5.84	12.8

솜다리는 분경 또는 분재용 이용하면 좋으며 고랭지처럼 여름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지피용 소재나 암석원 등의 식재용으로 우수한 식물이다. 또한 압화 및 분화용으로 흔히 이용되며, 어린잎은 나물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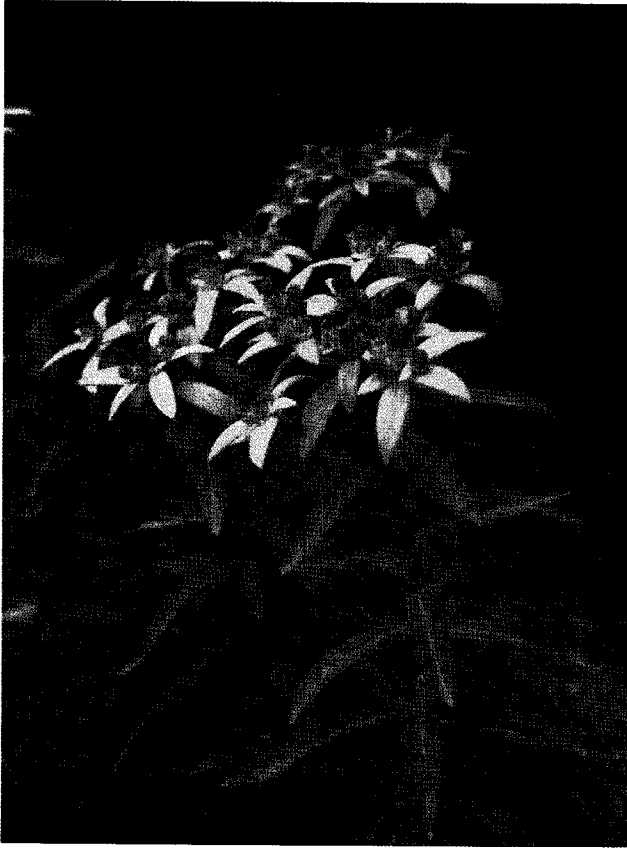
## 2. 재배기술

### 가. 생육환경

자생지 환경은 해발 380~1,000m 정도의 시원한 곳으로 북쪽이나 북동쪽의 바위 표면 또는 아주 척박한 곳이다. 즉, 겨울에는 눈 속에 묻혀있고 생육기인 봄, 여름에는 나지에 노출되어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받는 암석지대로 배수가 잘되는 반면 매우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자생지 토양은 pH 4.9 정도의 강산성이며 유기물 함



▲ 자생지에서 개화모습(왜솜다리)



▲ 슝다리 전경

량도 일반토양에 비해 매우 낮은 곳이다.

### 나. 번식

종자번식은 7월경 종자를 채취한 후 원예용 조제상토나 부엽토 등을 사용하여 묘상이나 묘판을 설치하여 파종한 후 복토는 얇게 해주고 습도를 70%정도 유지하여 관리하면 10일후 발아된다. 슝다리의 종자 발아는 비교적 저온성으로 적온은 15~18℃이며 약 90%까지 발아된다.

파종 후 2년이 지나면 꽃이 피기 시작한다. 포기 나누기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봄 또는 가을에 싹이 2~3cm 정도 나왔을 때 하는 것이 좋다. 표 2에서처럼 슝다리는 육묘시 광도가 높을수록 묘가 크고 충실

해진다.

### 다. 식재장소

슝다리는 척박한 토양을 좋아하므로 특별한 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여름철에는 고온에 약하므로 50% 정도 차광해 주는 것이 좋으며 바람이 잘 통하는 반 그늘진 곳으로 시원한 곳에 심어야 한다. 특히 습해에 매우 약하여 장마철에 식물체가 죽는 경우가 많다. 비가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약간 경사진 낙엽수 밑에 심는 것이 좋다.

### 라. 시비

시비는 봄에 꽃피기 전에 해 준다. 완숙 퇴비 2,000kg/10a를 주고 여름에는 생육상태에 따라 4종복비 1,000~1,500배를 월 3~5회 엽면에 뿌려 준다. 분에 심을 때는 봄에 분갈이 할 때나 분갈이 후 유기질의 고형비료를 용토 표면에 뿌려준다.

### 마. 병해충 방제

병해충 피해는 별 문제가 없으나, 너무 과습하면 지체부에 연부병, 뿌리썩음병 등이 나타나므로 수분관리를 조심하고 하부에 병징이 보일 때는 벤레이트 등의 살균제를 살포한다. 여름 고온에 잎이 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잎은 빨리 제거해서 새 잎이 잘 나오도록 한다. 